

경판방각소설의 각자체(刻字體) 연구*

이 창 현**

차 례

- | | |
|---------------------|----------------------|
| I. 서론 | IV. 오독을 가져오는 유사한 자형들 |
| II. 각자체에 대한 기본적 이해 | V. 결론 |
| III. 각자체로서의 ‘卜’의 형태 | |

I. 서론

고전소설은 대개 소설책의 형태로 생산·유통되다가 아직도 책의 형태로 우리 주변에 남아 있다. 이 소설책을 어떠한 방법으로 제작하였는가에 주목하여, 이를 크게 셋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직접 붓을 들어 쓴 소설책이다. 이를 우리는 필사본으로 유통되는 고전소설이라고 하였다. 둘째는 목판에다가 판각하여 인행한 소설책이다. 이를 목판본으로 유통되는 고전소설이라고 하였으며, 특히 시장에서 매매하기 위해 이를 제작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방각본으로 유통되는 고전소설이라고 하였다¹⁾. 그리고 19세기 말 새로운 인쇄기술인 활판인쇄술이 도입되었고, 이

* 이 논문은 2005년도 명지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방각본으로 간행한 소설에 대한 논의 과정 중, 다음의 서술은 많은 시사점을 던

활판인쇄술을 소설책을 제작하는 데 사용하게 됨에 따라 활판본²⁾으로 유통되는 고전소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 필사본, 방각본, 활판본의 형태로 생산·유통된 고전소설 중 목판으로 간행한 방각본이 고전소설 유통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었다는 점에서³⁾ 이들 방각소설에

저 준다. “『通鑑』이니 『史要聚選』이니 『史略』이니 기타 많은 粗雜한 冊子들이 發刊되었으니 이들은 京鄕 각지의 書堂의 需要에 응한 것이나 일반에게 판매한 것은 아마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小說板本의 출현은 일반 小學書나 要覽 等屬의 坊刻이 성행하게 되자 이에 덧붙이어 일반 가정의 需要에 응하게 된 것이니 時期的으로 보아서는 一般書 坊刻에 뒤이은 것이고, 더욱 漢文 小說 刻本의 뒤를 이은 것이다.” (김동욱, 『판본고-한글소설 방각본의 성립에 대하여』, 『춘향전연구』, 연세대학교출판부, 1965, 383쪽. 이는 『한글소설 방각본의 성립에 대하여』, 『향토서울』 8, 1960.7.를 개고하여 수록한 것이다.) “일반에게 판매한 것”에서 출발하여, “使用價値라는 척도에서 出版된 것이 아니고 交換價値 즉 商品化하여 市場의 去來를 위한 出版”(류탁일, 『완판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 학문사, 1981, 22쪽)으로 그 성격이 구체화됨으로써 방각본으로 간행한 소설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였다. 여기에서 필자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漢文 小說 刻本의 뒤를 이은 것”(밑줄 필자)이라는 표현이다. 이를 “坊刻本”이라고 하지 않고 “刻本”이라고 한 표현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점이다. 이러한 궁금증은 영인본으로 소설 자료집을 펴내면서 『古小說板刻本全集』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증폭된다. “坊刻本”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을 羅孫 金東旭선생께서 왜 “板刻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이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는 “漢文 小說 刻本”을 고려하여 붙인 서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湯民 柳鐸一선생께서는 사적인 자리에서 자주 언급하신 바 있으며, 류준필교수 역시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제96회 학술발표회(2004.11.11)에서 이러한 견해를 표한 바 있다.

- 2) 이를 구활판본으로 지칭(李能雨, 『이야기책 舊活版本 調査目錄』, 『古小說研究』, 二友出版社, 1980)하기도 하고, 구활자본으로 지칭(李周映, 『舊活字本 古典小說研究』, 月印, 1998)하기도 하며, 활자본으로 지칭(權純肯, 『活字本 古小說의 편목과 지향』, 보고사, 2000)하기도 하고, 연활자본으로 지칭(류준경, 『達板 坊刻本 연구』, 『韓國文化』 35, 2005.6.)하기도 한다.
- 3) “이같이 板刻化됨으로써 原文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또는 간추려짐에 따라 內容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반면, 일정하게 內容의 定着도 가져 왔다는 것은 우리 小說 發達에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온 일인 것이다.”(류탁일, 『완판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 학문사, 1981, 11면)와 “텍스트의 고정성과 독자층의 범위, 원본과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판각본의 선택이 필사본이나 활판본의 선택보다는 위험 부담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이창헌, 『이야기·책·이야기』, 보고사, 2003, 119면)

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⁴⁾

이들 방각본이 목판으로 인쇄한 것이라는 점에서, 특히 이전의 필사본 소설과 달리 ‘문면의 가독성’과 함께 ‘생산의 편의성’을 함께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방각본 인행에 사용한 글자의 모양 곧 각자체(刻字體)를 검토하는 일은 한글이라는 문자의 활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한글의 가로쓰기가 보편적인 오늘날과 달리 한글의 세로쓰기가 보편적이었던 시대라는 점에 주목하여 각자체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고,⁵⁾ 이어서 완판방각소설의 일부 특수자형(特殊字形)과 함께 경관방각소설인 임경업전(1780년)과 전운치전(1847년)에 사용한 자형 ‘쇼’를 중심으로 각자체를 한 차례 검토한 바 있다.⁶⁾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경관방각소설에 사용한 각자체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고, 그 일단으로 한 작품에 사용한 각자체를 중심에 놓고 이를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우선 경관으로 간행한 방각소설 중 비교적 그 형태가 정연한 느낌을 주는 홍길동전을 중심에 놓고, 경관방각소설의 간행에 사용한 각자체에 대한 논의를 자형(字形)에 따라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루어진 자형에 대한 논의는,

는 언급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4) “坊刻小說이란 讀者들의 요구에 따라서 商人들에 의하여 營利를 目的으로 刊行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완판방각소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류탁일, 『완판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 학문사, 1981, 5쪽)가 이루어진 이후, 경관방각소설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이창현, 『경관방각소설 판본 연구』, 태학사, 2000), 안성방각본에 대한 논의(이창현, 『안성지역의 소설 방각활동 연구』, 『한국문화』 24, 1999; 최호석, 『안성의 방각본 출판 입지』, 19세기말·20세기초 안성지역의 출판문화 연구(I) 발표요지, 2005.6.3.; 李政沅, 『安城板 坊刻本 출판 현황』, 『語文研究』 127, 2005.9.), 달판 방각본에 대한 논의(류탁일, 『달판 방각본에 대하여』, 『서지학보』 3, 1988; 류준경, 『達板 坊刻本 연구』, 『韓國文化』 35, 2005.6.; 崔皓哲, 『大邱在田堂書舖의 出版 活動 연구』, 『語文研究』 132, 2006.12.)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 5) 이창현, 『이야기책의 글자모양 : 각자체(刻字體)』, 『이야기문학연구』, 보고서, 2005
- 6) 이창현, 『소설 방각본의 한글 각자체(刻字體) 소고』, 『민족문화』 28, 2005

미처 다루지 못한 다른 자형에 대한 논의와 아울러 다른 작품에 사용된 자형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재검토해야 할 것이기에, 시론적 성격이 강하다 하겠다.

II. 각자체에 대한 기본적 이해

서체와 자체, 그리고 필체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하여는 이미 한 차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른다면 ‘생산성이 높은 서체로서의 각자체’는 또한 ‘독자가 선호하는 서체’이기도 하다.⁷⁾

여기에서는 먼저 등재본인 정사본⁸⁾에 나타나는 서체(곧 필사자의 자체)를 출발점으로 삼아, 인행한 판본에 남아 있는 서체(곧 각자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재구성해 간략히 검토하기로 한다.

[가-A]



[자체1]*

[자체2]*

[자체3]*

[자체4]9)

7)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생활상의 필요에 의하여 발달한 서체인 자체(字體), 예술상의 필요에 의하여 발달한 서체인 필체(筆體), 그리고 이 자체와 필체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서의 서체(書體)라는 설정이 가능하다. 또한 필사자의 서체인 자체(字體)와 구분하기 위해서 각수(刻手)에 의해 새겨진 서체로서의 각자체(刻字體)라는 설정이 필요하다. 이창현, 『이야기책의 글자모양 : 각자체(刻字體)』, 『이야기문학연구』, 보고사, 2005, 115-117쪽 및 136쪽.

8) 등재본(登梓本)인 정사본은 精寫本이며 또한 淨寫本이다.

9) ‘드러가니’라는 어휘에 사용된 자형 ‘가’이다. 홍길동전 24장본 제1장 전엽 제13행

[가-B]



[가-C]



먼저 [자체1]은 등채본인 정사본에 나타나는 서체이다. 이를 판목에 뒤집어 붙인 모습의 서체를 [자체2]라고 한다. [자체2]를 근거로 각수(刻手)가 판각 작업을 한 결과 판목(板木)에 남아 있는 서체를 [자체3]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판목을 가지고 인출장(印出匠)이 인행한 결과 판본(板本)에 나타나는 서체를 [자체4]라고 한다.

이들 중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체4]뿐이다. 물론 판목이 현전한다면 [자체3]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전해지는 방각소설의 판목(板木)이 없다는 점에서 [자체3]을 확인할 수는 없다.¹²⁾ 본래 적

의 14번째 글자이다. 앞으로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가_01a_13_14>
 10) '나가거늘'에 사용된 자형 '가'이다. <가_01b_04_03>
 11) '공이 가장 무류하여'에 사용된 자형 '가'이다. <가_01b_04_08>
 12) 최근 서각인 손영학(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풍년마을 신일아파트 거주)씨에 의하여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가 복각되고 있으며 2007년 중에 완성될 예정이

의미의 각자체는 [자체3]이어야 하지만 판목의 부재로 이를 확인할 수 없기에 부득이 [자체4]를 각자체라고 한다.

[자체4]를 근거로 재구성한 [자체1]은 붓으로 쓴 정사본을 등재본 곧 판하본으로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초성인 자음 ‘ㄱ’에 있어서 가로줄기와 왼뺨침줄기가 연속되는 형태를 보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위에 제시한 세 개의 예에는 윗글자의 마지막 줄기로부터 이어지는 필흔(筆痕)이 있는 경우([가-A]와 [가-C])와 필흔이 없는 경우([가-B])가 모두 제시되었다. 필흔의 유무와 관계없이 ‘ㄱ’의 가로줄기의 끝부분에서 왼뺨침줄기가 나와 붓의 진행이 계속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중성인 모음 ‘ㅏ’를 필서함에 있어서는 세로줄기가 모두 끝나고 나서 붓을 들어 다시 가로줄기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 따라서 세로줄기의 필서를 진행하는 도중에 세로줄기 중간 부분이 끊긴다는 것은 붓에 의한 필서라는 속성 때문에 상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정사한 판하본에 나타나는 서체가 바로 [자체1]이다.

[자체1]을 가지고 판각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정사본을 풀칠하여 판목에 뒤집어 붙여야 한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자체1]은 이미 사라져버린 것이다. 물론 판목에 붙인 판하본을 조심스레 다시 떼어낸다면 어느 정도 [자체1]의 형태를 회복시키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반투명한 한지(韓紙)의 속성을 고려하여 이를 조금 흐린 상태로 제시한 것이 판목에 붙어 있는 [자체2]이다. 비록 한지가 반투명한 속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각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이를 좀더 또렷하게 보기 위하여 각수는 작업이 필요한 부분에 기름을 발라 거의 투명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판각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다.¹³⁾ [자체2]는

라고 한다. 이 작업이 완성되고 인행을 하게 된다면 [자체3]과 [자체4]를 확인할 수 있기에 판목에 있는 [자체3]에서 판본에 남는 [자체4]로의 변모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된다.

13) 이때 바르는 기름으로는 여러 가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피마자유 같은 기름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각수에 의한 판각 작업이 진행되면서 차츰 훼손되기 시작하고, 마침내 판각 작업이 마무리되고 덧붙인 종이 찌꺼기를 판목에서 완전히 제거함에 따라 [자체2] 또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 흔적을 판목에 [자체3]의 형태로 남기게 된다.

판목에 남아있는 [자체3]은 [자체2]와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판각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각수에 의해 부분적인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물론 이 변화에는 의식적인 변화와 무의식적인 변화가 모두 해당된다. 특히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卜’의 형태에 나오는 세로줄기의 모습이다. [자체1]과 [자체2]에서 이 세로줄기는 중간에 끊김이 없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각수에 의한 판각 작업에 의하여 세로줄기의 특정한 부분에 끊김이 발생한 것을 [자체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끊기는 부분이 세로줄기에 붙어있는 가로줄기와 관련이 있는 것도 매우 흥미롭다. 이는 판각 작업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수에 의해 의식적으로 생긴 변화라고 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자체1]은 [자체3]에 이르러 이미 변형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판목에 남아있는 [자체3] 역시 불변의 것만은 아니다. 줄기들 가운데 너무 약하게 새겨진 줄기는 인출 과정을 통하여 변형되거나 탈획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판목 자체의 갈라짐이나 뒤틀림으로 인해 변형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가장 엄밀한 의미에서 각자체는 [자체2]의 단계에서 [자체3]의 단계로 옮겨진 시점에 판목에 남아 있는 서체이다. 그러나 이들 판목을 현재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판목을 사용해 인출한 판본에 남아 있는 [자체4]를 각자체로 인정하는 것일 뿐이다.

여기에서 [자체1]과 [자체4]를 비교하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체1]은 붓의 흔적을 보여주는 서체라고 한다면 [자체4]는 판각의 흔적을 보여주는 서체라고 하겠다.

이에 더하여 설명해야 할 부분은 [가-C]로 제시한 [자체3]과 [자체4]에 나타나는 묵흔(墨痕)같은 부분의 문제이다. 이것이 판목 자체에 남아 있

는 흔적이라면 이 판목을 사용하여 인출한 대부분의 판본에는 이 부분이 나타나야만 한다. 그러나 동일한 판목을 사용하여 인출한 특정한 판본에서만 이것이 보이고 대부분의 판본에는 이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판목에 있는 각자체의 일부라기보다는 이 판본에만 나타나는 묵혼으로 보는 것이 옳다 하겠다. 따라서 [가-C]의 [자체3]으로 제시한 부분의 묵혼은 없는 것이 옳다 하겠다.

Ⅲ. 각자체로서의 ‘ㄱ’의 형태

1. 자형 ‘가’의 경우

위에서 제시한 ‘가’와 같은 각자체의 모습을 염두에 두었을 때, 세로줄기와 가로줄기가 겹치는 부분을 경계로 세로줄기가 끊긴다는 점에서 ‘ㄱ’의 형태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가-2]의 [자체4]를 예로 들어 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기본형]의 형태에서 ‘ㄱ’의 세로줄기 중 가로줄기와 만나는 부분 이하에 해당하는 일부(끊김 이하의 부분)가 아예 생략된 경우가 위에 제시한

14) <가_01b_04_03>

15) <가_06a_02_01>

[변이형A]의 형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이형A]를 이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실제 문헌에 나타나는 경우를 살펴보면, 모두 ‘卜’의 가로줄기 끝에서 다음에 이어지는 글자의 첫 번째 줄기를 향하여 필흔이 이어지는 경우인 [변이형B]이다. 실제로 이들 [변이형A]와 [변이형B]가 나타나는 모습을 생각하면, [변이형A]가 이념형이라고 한다면 [변이형B]는 실행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변이형B]에 나타나는 필흔 --가로줄기의 끝에서 다음에 이어지는 글자의 첫째 줄기를 향하여 내닫는 필흔-- 속에는, [기본형]에서 끊겨있는 세로줄기의 일부분과 [변이형B]의 필흔이 결합하면서 변이형을 형성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는 이들 각자체가 해서(楷書)나 행서(行書)를 지향하는 각자체가 아니라, 초서(草書)를 지향하는 각자체라는 것을 보여준다. “두 글자 또는 여러 글자들이 연자(連字)되어 쓰여진 것” 곧 간단히 말해 “연자(連字)로 쓰인 것”을 초서(草書)로 구분한 기존의 논의¹⁶⁾를 참조할 때에 이는 더욱 분명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여기에 제시한 ‘가’와 달리,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이 어떻게 변형되는가 하는 점이다. 곧 ‘각, 간, 갈, 감, 갑, 갓, 강’ 등등의 경우이다. 이 경우에 나타나는 필흔은 한 글자 안에서의 문제이기예, 초서(草書)를 지향하는 각자체로서의 필흔이라기보다는 행서(行書)를 지향하는 각자체로서의 필흔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의 형태를 포함한 각자체 중 대표적인 것을 하나씩 들면 다음과 같다.

16) 기존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초서(草書)는 ‘두 글자 또는 여러 글자들이 연자(連字)되어 쓰여진 것’ 곧 간단히 말해 ‘연자(連字)로 쓰인 것’이다. 행서(行書)는 ‘한 글자의 여러 획(劃)들이 서로 이어져 있으면서 다른 자와는 독립되어 있는 것’ 곧 ‘연획(連劃)으로 쓰인 것’이다. 해서(楷書)는 ‘한 글자 속에서 그어진 획(劃)들이 하나 하나 쓰여진 것’ 곧 ‘분획(分劃)으로 쓰인 것’이다. 柳鐸一, 『韓國文獻學研究』, 亞細亞文化社, 1990(재판), 119-120쪽 참조.

가 가 가 가

[가-1] [가-2] [가-3] [가-4]¹⁷⁾

각 각 각 각

[각-1] [각-2] [각-3]* [각-4]¹⁸⁾

간 간 간 간

[간-1] [간-2]* [간-3] [간-4]¹⁹⁾

갈 갈 갈 갈

[갈-1]* [갈-2] [갈-3]* [갈-4]²⁰⁾

17) <가_01b_04_03>, <가_06a_02_01>, <가_22b_04_13>, <가_22a_14_17>

18) <각_03b_13_02>, <각_07a_05-14>, <각_05b_13_01>, <각_22a_12_09>. [각-3]의 경우는 형태에 있어서 또다른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9) <간_14b_03_02>, <간_02a_05_11>(춘향전23장본), <간_23a_13_12>, <간_02a_12_07>(춘향전23장본)

20) <갈_02a_07_07>(춘향전23장본), <갈_19a_04_06>, <갈_13a_13_23>(춘향전23장

감 감 감 감

[감-1]

[감-2]

[감-3]

[감-4]*21)

갇 갇 갇 갇

[갇-1]*

[갇-2]

[갇-3]*

[갇-4]*22)

갓 갓 갓 갓

[갓-1]

[갓-2]

[갓-3]*

[갓-4]23)

강 강 강 강

[강-1]*

[강-2]

[강-3]

[강-4]24)

본), <갈_20a_03_13>(춘향전23장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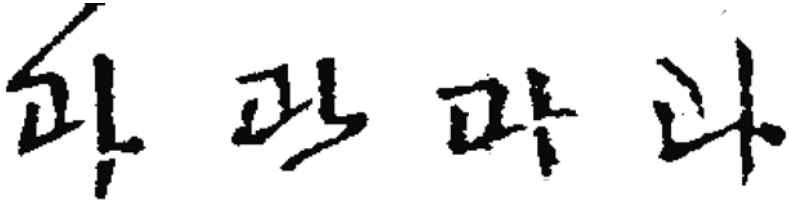
21) <감_11b_11_15>, <감_09b_09_14>, <감_22b_04_23>, <감_05a_09_21>(춘향전 23장본)

22) <갇_11b_10_08>(진대방전), <갇_06a_05_09>, <갇_13b_04_13>(전운치전), <갇_37a_03_15>(전운치전)

23) <갓_19a_04_11>, <갓_07b_02_04>, <갓_06a_12_16>(진대방전의 내훈), <갓_22b_06_13>

위에 제시된 자형들은 홍길동전 24장본에서 주로 추출한 것으로, 왼쪽의 두 글자는 제1장 이하 제20장에 나타나는 것이며, 오른쪽의 두 글자는 제21장 이하 제24장에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처럼 [] 옆에 *이 붙은 글자는, 적절한 자형이 이 문헌에 보이지 않는 관계로 다른 문헌에서 유사한 글자를 가져와 참고용으로 제시한 것이다(이하 동일하다).

다음에 제시하는 자형은 복모음의 일부로 ‘ㅏ’가 들어간 경우로, 초성이 ‘ㄱ’으로 나타난 경우이다. ‘과’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과 ‘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과-1]

[과-2]

[과-3]

[과-4]*25)



[관-1]

[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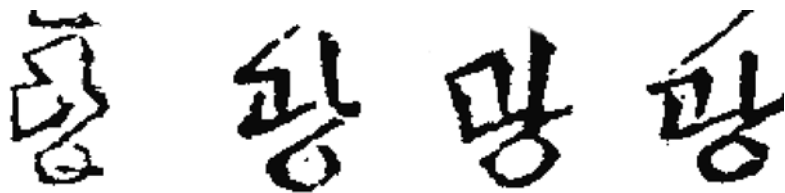
[관-3]

[관-4]26)

24) <강_05b_12_18>(진대방전의 내훈), <강_19b_12_08>, <강_21a_05_04>, <강_23a_10_12>

25) <과_12b_12_13>, <과_11a_08_18>, <과_24b_06_14>, <과_13b_11_03>(전운치전)

26) <관_18a_11_15>, <관_10a_07_09>, <관_21a_02_18>, <관_24a_12_04>



[광-1]*

[광-2]

[광-3]

[광-4]²⁷⁾



[괘-1]

[괘-2]*

[괘-3]*

[괘-4]^{*28)}

‘가’를 중심으로 살펴본 이들 각자체가 보여주는 다양한 변형을 통하여 ‘ㅏ’라는 형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행서를 지향하는 각자체 [‘ㅏ’A형]이다. 이는 위에 제시한 글자들 중 첫 번째([○-1])와 세 번째([○-3])에 해당하는 글자에 나타나는 ‘ㅏ’이다.

또 하나는 행서를 지향하는 각자체 [‘ㅏ’B형]과 초서를 지향하는 각자체 [‘ㅏ’C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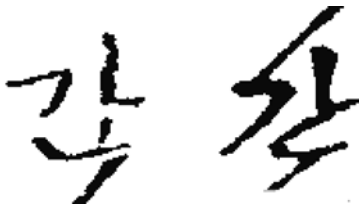
‘행서를 지향하는가 아니면 초서를 지향하는가’의 차이는, ‘하나의 글자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인가, 아니면 다음에 나타나는 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인가’ 하는 차이이다. 곧 필흔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의 글자 안에서인가, 아니면 다른 글자와의 관계 속에서인가’의 차이

27) <광_01a_09_10>(삼설기 상), <광_08b_02_13>, <광_21b_15_20>, <광_21a_12_24>

28) <괘_06a_04_12>, <괘_03a_12_13>(삼설기 상), <괘_06b_14_13>(삼설기 이), <괘_02a_06_09>(진대방전). [괘-4]로 제시한 것은 ‘괘’가 아닌 ‘괘’이다.

이다. 하나의 글자 안에서 나타나는 필흔이 연획(連劃)의 문제라고 한다면 다른 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필흔은 연자(連字)의 문제라 하겠다. 연획의 경우나 연자의 경우 모두 각각의 줄기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는 동일한 필흔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여기에서 제시한 행서를 지향하는 각자체 [‘卜’B형]에 나타나는 필흔은 받침이 있는 ‘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초서를 지향하는 각자체 [‘卜’C형]에 나타나는 필흔은 받침이 없는 ‘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행서를 지향하는 각자체 [‘卜’B형] 곧 받침이 있는 ‘卜’에 해당하는 각자체라고 하여서 초서를 지향하는 각자체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받침에 해당하는 줄기가 끝나고 난 지점(곧 한 개의 글자가 완성된 지점)에서 다음에 나타나는 글자의 첫 번째 줄기를 향하여 지속되는 필흔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하나의 글자 안에서의 필흔은 행서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흔이라고 불러야 하며, 다음 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필흔은 초서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흔이라고 불러야 한다.

실제 위에서 제시한 [간-1]과 [간-3]을 예로 들어 이를 설명하기로 하자.



[간-1]

[간-3]29)

첫 번째인 [간-1]의 경우, ‘卜’와 받침 ‘㇇’은 필흔으로 서로 연결이 되

29) <간_14b_03_02>, <간_23a_13_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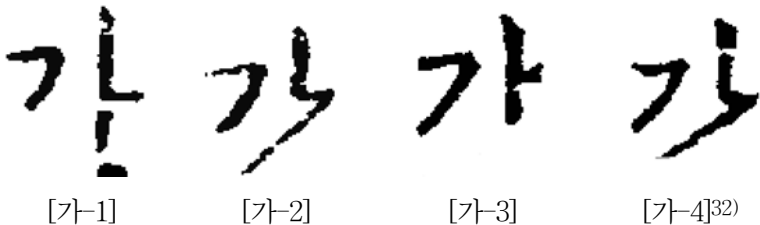
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해서를 지향하는 각자체이다. 하지만, 받침 ‘ㄴ’의 가로줄기가 끝나는 지점에서 다음에 나올 글자를 향하여 필흔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초서를 지향하는 각자체이기도 하다.

두 번째인 [간-3]의 경우,³⁰⁾ ‘ㅌ’와 받침 ‘ㄴ’의 세로줄기가 시작하는 지점이 필흔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행서를 지향하고 있는 각자체이며, 아울러 받침 ‘ㄴ’의 가로줄기가 끝나는 지점에서 다음에 나올 글자를 향하여 필흔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초서를 지향하는 각자체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초서를 지향하는 각자체로서의 특성은 이미 윗글자의 마지막 줄기에서부터 초성 ‘ㄱ’을 향하여 지속되는 필흔을 통하여 거듭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가’계열의 각자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가’뿐만 아니라 ‘ㅌ’계열의 각자체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제 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2. 자형 ‘나’ ~ ‘하’의 경우

위에서는 주로 ‘가’와 결합한 ‘ㅌ’의 형태를 살펴보았다. 동일한 요령에 따라 ‘나’, ‘다’, ‘라’, ‘마’, ‘바’ 등을 차례로 제시한다.³¹⁾



30) 이는 홍길동전 24장본의 전반부가 아닌 후반부인 제23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자형으로서 한계를 지닌다.

31) 받침이 없는 경우를 중심으로 제시하려고 하나, 해당하는 글자가 없는 경우에는 받침이 있는 글자 중에서 이를 제시하기로 한다.

32) <가_01b_04_03>, <가_06a_02_01>, <가_22b_04_13>, <가_22a_14_17>

나 나 나 나

[나-1]

[나-2]

[나-3]

[나-4]³³⁾

라 라 라 라

[라-1]

[라-2]

[라-3]

[라-4]³⁴⁾

리 리 리 리

[리-1]

[리-2]

[리-3]

[리-4]³⁵⁾

마 마 마 마

[마-1]

[마-2]

[마-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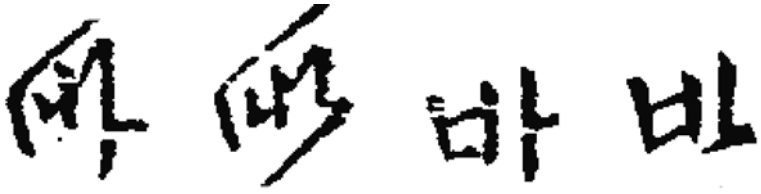
[마-4]³⁶⁾

33) <나_16b_07_11>, <나_18a_14_12>, <나_23a_02_01>, <나_23b_09_09>

34) <다_03a_02_09>, <다_05a_13_20>, <다_21b_10_13>, <다_23a_13_17>

35) <라_01a_06_01>, <라_09a_14_09>, <라_23b_13_19>, <라_23b_03_02>

36) <마_13b_14_01>, <마_09b_13_02>, <마_24b_10_25>, <마_21b_06_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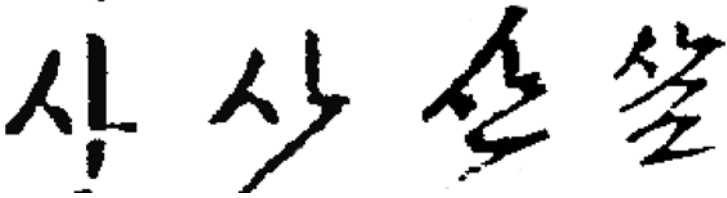


[바-1]

[바-2]

[바-3]

[바-4]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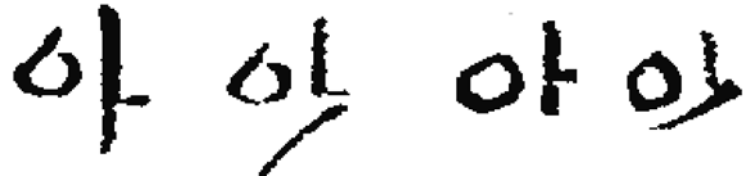


[사-1]

[사-2]

[사-3]*

[사-4]^{*38)}



[아-1]

[아-2]

[아-3]

[아-4]³⁹⁾



[자-1]

[자-2]

[자-3]*

[자-4]^{*40)}

37) <바_04b_05_04>, <바_06b_12_18>, <바_23a_11_01>, <바_21a_10_07>

38) <사_02a_06_04>, <사_06a_12_02>, <산_21b_10_25>, <살_22a_02_05>. 여기에
서 제시한 [사-3]은 적당한 예가 보이지 않아서 [사-4]와 동일한 형식의 자형을
보인다. 이하 동일하다.

39) <아_05a_06_18>, <아_01b_09_04>, <아_24a_08_04>, <아_21a_15_03>

40) <자_13a_12_03>, <자_16b_03_14>, <작_21a_13_03>, <작_24a_11_22>

찬 찰 친 찬

[차-1]*

[차-2]*

[차-3]*

[차-4]*41)

칼 살 콧 피

[카-1]*

[카-2]*

[카-3]*

[카-4]*42)

타 타 타 타

[타-1]

[타-2]

[타-3]

[타-4]*43)

파 팔 좌 편

[파-1]

[파-2]*

[파-3]

[파-4]*44)

41) <찬_08b_14_15>, <찰_02a_08_13>, <친_23b_03_16>, <찬_21a_06_06>

42) <칼_07b_08_10>(진대방전의 내훈), <칼_06b_08_21>, <피_21b_02_07>, <피_21b_07_17>

43) <타_01b_09_08>, <타_19b_04_10>, <타_24b_15_06>, <타_13b_02_17>(전운치전). [타-3]은 ‘타’를 오각한 각자체로 보인다.

44) <파_16a_01_17>, <팔_12b_09_13>, <좌_24a_06_04>, <편_22b_08_20>

하 하 라 환

[하-1]

[하-2]

[하-3]

[하-4]*45)

초성이 ‘ㄱ’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초성이 ‘ㄴ’인 경우 이하 ‘ㅎ’인 경우 까지 모두 ‘ㅏ’의 형태에 있어서는 동일한 양상을 되풀이하고 있다([○-○])*으로 표시한 것은 참조용으로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서도 첫 번째([○-1])와 세 번째([○-3])에 나타나는 ‘ㅏ’는 분명 해서를 지향하는 각 자체 [‘ㅏ’A형]이고, 두 번째([○-2])와 네 번째([○-4])에 나타나는 ‘ㅏ’는 주로 초서를 지향하는 각 자체 [‘ㅏ’C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그 중에는 행서를 지향하는 각 자체 [‘ㅏ’B형]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대개 받침이 있는 경우에 받침을 향하여 필흔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때 ‘ㅏ’의 마지막 줄기 끝이 아닌, 받침의 마지막 줄기 끝에서 다음 글자를 향하여 필흔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나, ‘ㅏ’에만 주목하여 본다면 이는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ㅏ’의 형태는 위에서 검토한 일반적인 ‘ㅏ’의 변화와는 다른 변화를 보여주는 경우이다. 이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나 각 팔

[나-5]

[나-6]

[각-3]

[파-5]46)

45) <하_16a_05_19>, <하_16b_07_16>, <하_24b_08_18>, <한_21a_11_25>

위의 경우는 모두 ‘ㅏ’의 가로줄기⁴⁷⁾에서 변화가 생긴 것이다. 앞서 살펴 본 ‘ㅏ’의 경우에는 가로줄기가 수평 또는 수평과 유사한 형태임에 비하여, 여기에서 제시한 ‘ㅏ’의 형태는 세로줄기에 이어서 쓴 가로줄기가 점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같은 점의 형태로 가로줄기를 변화시킨 것이 붓으로 쓰기에 훨씬 수월하다는 점에서, 곧 서사의 편의성이라는 점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변화라 하겠다.⁴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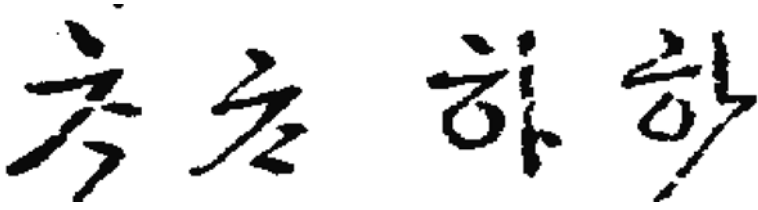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준 것이 위에 제시한 글자 중 첫 번째인 [나-5]이다. 이처럼 해서체적 경향을 지니는 각자체인 [나-5]가 초서체적인 경향(받침이 없다는 점에서 초서체적 경향이라 하였다)을 지니는 각자체로 변할 때, 곧 다음에 나올 글자의 첫 줄기의 시작 부분과 필흔으로 연결될 때, 위의 두 번째 글자인 [나-6]의 가로줄기와 필흔의 결합과 같은 형태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가로줄기의 변화가 하나의 글자 안에서만 나타날 때, 곧 행서체적 경향(받침을 가지고 있는 글자인 까닭에 이를 초서체적 경향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행서체적 경향이라고 하였다)을 지니는 각자체로 변할 때, 위의 세 번째인 [각-3]과 네 번째인 [파-5]의 가로줄기와 필흔의 결합 형태를 보여준다.

이러한 점의 형태로 변한 가로줄기의 모습은 ‘ㅏ’와 ‘ㅎ’ 등에 나타나는 꼭지라는 점의 형태에서 이미 확인되는 것이기도 하다. 아래의 [차-5]와 [하-5]는 필흔이 없는 꼭지이고, [차-6]과 [하-6]은 필흔이 있는 꼭지이다. 이 필흔이 있는 꼭지의 모습이 위에서 검토한 [나-6], [각-3], [파-5]와 같은 가로줄기의 변화와 유사한 모습을 보임을 알 수 있다.

46) <나_09a_11_08>, <나_13a_04_19>, <각_05b_13_01>, <팔_11b_11_08>, [각-3]은 이미 위에서 한 차례 제시한 바 있다.

47) 이를 줄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점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으나, 위에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로줄기라고 계속 지칭하여 왔기에 여기에서도 이를 가로줄기라고 지칭한다.

48) 이러한 모습은 초기 한글의 서체인 훈민정음에 사용한 판본체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서 이미 여러 차례 다루어진 바 있다.



[차-5]

[차-6]

[하-5]

[하-6]49)

그렇다면 이들 ‘나’의 형태에 변화가 일어나는 양상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타당한가? 지금까지 위에서 제시하였던 예 중에서 다섯 개를 취하여 이를 살펴기로 한다.



[1]

[2]

[3]

[4]

[5]

[1]로부터 [2]로의 변화, 그리고 [3]으로부터 [4]로의 변화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5]로의 변화는 [2]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4]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물론 [2]로부터 [5]로의 변화를 상정할 수도 있겠으나, 필자의 판단으로는 [4]로부터 [5]로의 변화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⁵⁰⁾

49) <츠_02a_09_10>, <츠_06a_01_01>, <하_07a_13_02>, <하_16b_07_16>

50) 이러한 판단의 근거에는 홍길동전 <24장본>이 지닌 판본으로서의 복합성이 놓여있다. <24장본>을 검토하면 누구나 전반부라고 지칭하는 제1장 이하 제20장까지와 후반부라고 지칭하는 제21장 이하 제24장까지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현, 『경판방각소설 판본 연구』, 태학사, 2000, 373-400쪽 및 이창현, 『경판(京板) 방각소설 <24장본>의 문헌적 성격』, 『한국문학논총』 26, 2000.6. 150-154쪽 참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1], [2], [3] 사이의 관계이다. [1]로부터 [3]으로의 변화인가? [2]으로부터 [3]으로의 변화인가? 아니면 [3]으로부터 [2]로의 변화인가? 이것 역시 [1]로부터 [3]으로의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형태만을 중시하여 ‘卜’의 변화를 추정한다면, [1]에서 [2]으로의 변화, [1]에서 [3]으로의 변화, [3]에서 [4]로의 변화, [4]에서 [5]로의 변화라는 변화의 순차적 진행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겠다.

IV. 오독을 가져오는 유사한 자형들

여기에서는 자형의 변화로 말미암아 비슷한 모양이라는 느낌을 주어 다른 글자로 잘못 읽을 수 있는 각자체를 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물론 이러한 해독의 오류는 각자체에 대한 익숙함과 아울러 문맥에 의존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각자체에 대한 좀 더 확충된 논의를 염두에 둔다면 한번은 검토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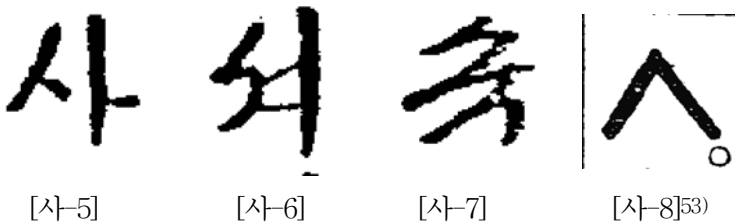
1. ‘ㄱ’과 ‘ㅅ’의 구분 : ‘겨’와 ‘셔’

‘ㄱ’과 ‘ㅅ’은 분명하게 구별되는 자형이다. 다만 ‘ㄱ’과 ‘ㅅ’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는 필흔과 결합된 ‘ㄱ’이 ‘ㅅ’처럼 보이는 경우이다. ‘ㄱ’의 가로줄기가 시작되는 부분을 향하여 앞의 글자의 마지막 줄기 끝에서부터 필흔이 지속되는 경우, 이것이 ‘ㄱ’인가 아니면 ‘ㅅ’인가 하는 구분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모든 ‘ㄱ’이 필흔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ㄱ’이 초성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초서(草書)를 지향하는 각자체, 곧 “두 글자 또는 여러 글자들이 연자(連字)되어 쓰여진 곳” 간단히 말해 “연자(連字)로 쓰인 곳”에서만 나타나는 자형이다.

필흔을 가진 모든 ‘ㄱ’이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ㅅ’의 형태와 필흔을

가진 ‘ㄱ’의 형태가 유사하게 보이는 경우를 검토의 대상으로 삼는다. 본래 ‘ㅅ’은 ‘ㄱ’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자형이지만, ‘ㅅ, ㅆ, ㅈ, ㅊ, ㅌ’처럼 초성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모음과 ‘ㅅ’이 결합하는 경우 ‘ㅅ’의 형태에 부분적인 변화가 생기고, 이렇게 변화된 ‘ㅅ’이 필흔을 가진 ‘ㄱ’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ㅅ’은 처음인 까닭에 ‘ㄱ’와 결합한 형태 보다는 ‘ㅊ’와 결합한 형태로 문헌에 나타나는 것이 보편적이다.⁵¹⁾

다음에 제시한 [사-5]는 ‘ㅅ’의 본래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사-6]과 [사-7]은 ‘ㅅ’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⁵²⁾



먼저 뺏침줄기 곧 왼뺏침줄기와 오른뺏침줄기로 구성된 ‘ㅅ’부터 검토하기로 한다. ‘ㅅ’을 구성하는 왼뺏침줄기와 오른뺏침줄기가 처음에는 길이가 같았다는 것, 그리고 왼뺏침줄기의 시작부분에서 오른뺏침줄기가 시작되었다는 것 등은 훈민정음에 나오는 ‘ㅅ’의 형태([사-8] 참조)를 통

51) ‘ㄱ’과 ‘ㅅ’을 비교하기 위해 서로 대응하는 자형을 찾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가,각,간,갈,감,상), 사(사,삭,산,살,삼,상); ㄷ(ㄷ,궤,궤,기,궤), ㅅ(ㅅ,술,습,시,식); 거(거,궤,궤,궤,궤,궤,궤), 셔(셔,궤,궤,궤,궤,궤,궤); 고(고,궤,궤,궤), 소(소,궤,궤,궤); 교, 쇼; 구(구,궤,궤), 수(수,궤,궤); 그(그,궤,궤,궤), 스(스,궤,궤,궤,궤); 기(기,궤,궤,궤) 시(시,궤,궤,궤).

52) [사-7]에 보이는 ‘ㅅ’의 형태에 대해서는 이창현, 『소설 방각본의 한글 각자체(刻字體) 소고』, 『민족문화』 28, 2005에서 그 일부를 검토한 바 있다.

53) <사_02b_03_08>, <셔_01a_04_09>, <슈_03b_05_20>, <ㅅ-02b-01-01>(훈민정음)

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사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ㅅ’의 형태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러한 변화는 왼뺨침줄기의 중간에서 오른뺨침줄기가 나와서 마무리를 짓는 자형을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사용하게 되었던 것 같다([사-5] 참조).

그러나 이 형태는 모음과의 결합 방식에 의하여 변화가 나타나는데, ‘오른뺨침줄기가 왼뺨침줄기의 끝에서 나와서 호를 그리다가, 왼뺨침줄기와 평행을 이루는 방식으로 줄기를 마무리하는 형태’로의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ㅅ’이 ‘ㄱ’ 또는 ‘ㅋ’와 결합할 때 주로 나타난다. 홍길동전에 나오는 글자를 살펴보면, ‘셔, 석, 선, 설, 섬, 섭, 성, 세, 셋’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와 비교할 수 있는 글자로는 ‘겨, 격, 견, 걸, 겹, 겹, 경, 계’ 등이다. 물론 이들은 받침이 없는 경우와 받침이 있는 경우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으나 거개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이때 ‘ㅅ’을 구성하는 오른뺨침줄기가 호를 그리다가 왼뺨침줄기와 평행을 이루는 방식으로 줄기를 마무리하는 형태는, 윗글자로부터 필흔을 가지고 내려와 ‘ㄱ’의 가로줄기를 시작하는 ‘ㄱ’의 형태와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ㅅ’의 왼뺨침줄기는 ‘ㄱ’을 구성하는 가로줄기의 시작부분까지 이어지는 윗글자와의 필흔에 대응한다.

위에서 세 번째로 제시한 형태([사-7])는 왼뺨침줄기의 끝에서 오른뺨침줄기가 시작하는 경우인데, 이 중에서도 특히 오른뺨침줄기가 가로 방향으로 평행선을 그리는 느낌으로 진행할 때에 나타나는 ‘ㅅ’이다. 위에 제시한 ‘슈’의 경우, 비교할 수 있는 ‘규’의 형태가 홍길동전 24장본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같은 ‘슈’의 형태는 ‘속’의 형태로 오독할 수 있기에 이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먼저 필흔을 가진 ‘겨’와 이에 대응하는 ‘셔’를 비교하기로 한다.

[겨-1]

[셔-1]

[셔-2]

[셔-3]⁵⁴⁾

윗글자의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을 향하여 내려온 필흔과 함께 시작한 ‘ㄱ’은 가로줄기와 세로줄기(이 경우에는 왼뺨침줄기의 형태를 보인다)로 완성된 모습을 보인다([겨-1]). 여기에 비교군으로 제시한 3개의 ‘셔’에 나타나는 ‘ㅅ’의 형태를 함께 살펴기로 한다. [셔-1]과 [셔-2]의 왼뺨침줄기는 글자의 중간쯤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서 [겨-1]의 필흔과 구별된다. 반면에 [셔-3]의 경우 왼뺨침줄기가 글자의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을 향하여 내려오고 있어서 왼뺨침줄기의 시작점만을 가지고서 ‘ㄱ’과 ‘ㅅ’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더군다나 [셔-3]의 ‘ㅅ’은 필흔과 왼뺨침줄기가 이어져 하나의 줄기처럼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겨-1]과 [셔-3]을 구별하는 것은 결국 ‘ㄱ’에 나타나는 필흔의 각도와 ‘셔’에 나타나는 왼뺨침줄기의 각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다음에 제시하는 자료 ‘석’에서도 거듭 확인되고 있다.

[석-1]

[석-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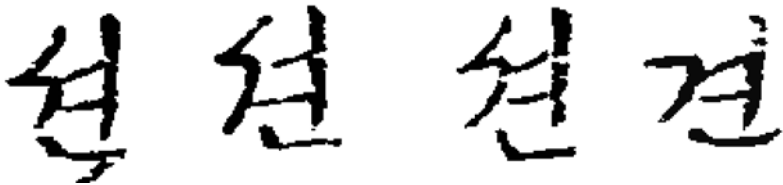
[석-3]

[격-1]⁵⁵⁾

54) <겨_22b_14_14>, <셔_03b_03_16>, <셔_05b_04_22>, <셔_11a_09_17>

55) <석_06b_03_02>, <석_15b_11_06>, <석_15b_12_15>, <격_24a_03_03>. 필흔을

[석-1] [석-3]과는 달리, [석-2] 역시 필흔과 왼뺨침줄기가 하나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셔-3]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이 필흔과 왼뺨침줄기가 결합한 줄기가 글자의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을 향하여 내려오고 있어서 앞서 제시한 [겨-1]의 ‘ㄱ’과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다음의 자료에서도 역시 유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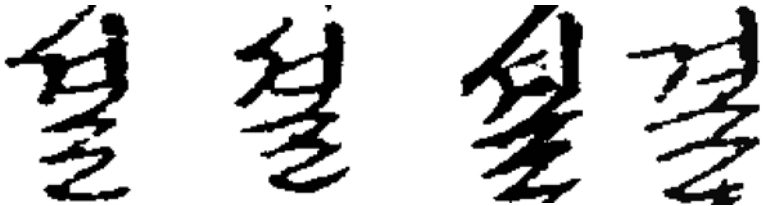


[선-1]

[선-2]

[선-3]

[견-1]⁵⁶⁾



[결-1]

[설-1]

[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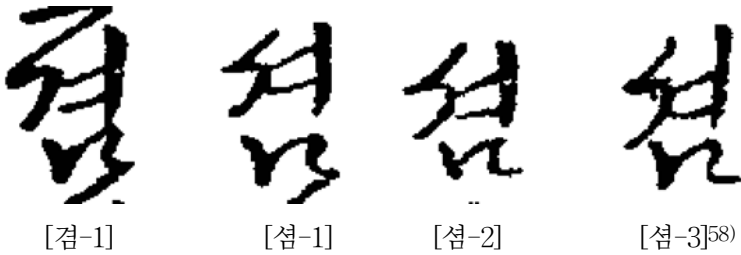
[결-2]⁵⁷⁾

[선-1] [선-2] [선-3] [설-1]의 왼뺨침줄기가 글자의 중간쯤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과 달리, [결-1]의 필흔과 [설-2]의 왼뺨침줄기는 글자의 오른쪽 끝에서부터 시작하여 왼쪽 끝을 향하여 내려오고 있다.

가진 ‘격’은 보이지 않는다.

56) <선_15a_05_01>, <선_19a_13_11>, <선_20b_01_07>, <견_05b_01_02>. 필흔을 가진 ‘견’은 보이지 않는다.

57) <결_10a_02_21>, <설_01a_02_02>, <설_21a_07_09>, <결_17a_10_06>



[섬-1] [섬-2] [섬-3]은 오른뺨침줄기가 어디까지 연장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 특히 [섬-3]의 경우 왼뺨침줄기보다 바깥쪽으로 까지 오른뺨침줄기가 진행되는 양상을 보여 이를 ‘섬’으로 읽기보다는 ‘곶’으로 읽을 개연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오독의 개연성은 다음의 ‘경’과 ‘성’에서도 거듭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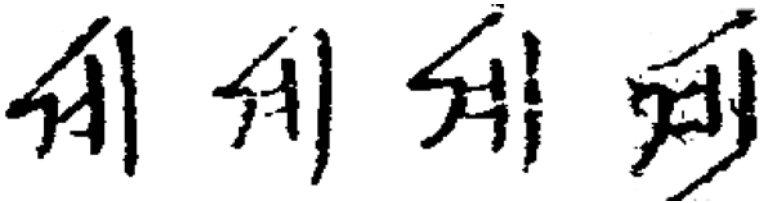
58) <곶_01a_05_06>, <섬_01a_08_03>, <섬_01b_07_03>, <섬_20a_11_11>

59) <경_01b_02_05>, <경_17b_14_07>, <경_24a_08_02>, <경_02a_14_14>

60) <성_04b_08_01>, <성_17a_14_09>, <성_20a_10_02>, <성_24a_01_21>

[성-2]의 경우 이를 ‘성’으로 읽을 개연성보다는 ‘경’으로 읽을 개연성이 더욱 높아진다. 특히 이는 왼뺨침줄기가 오른뺨침줄기에 비하여 가느다란 느낌을 주어 마치 이것이 ‘ㄱ’의 필흔처럼 보이기도 한다. 반면 [경-2]의 경우 이를 ‘성’으로 오독할 개연성도 존재한다. 다만 이 경우 ‘성’으로 읽기에는 오른뺨침줄기가 너무 날카로운 느낌을 주기에 호를 그리는 ‘ㅅ’의 오른뺨침줄기와 구별된다. 따라서 이를 ‘경’으로 읽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계’와 ‘세’에서도 거듭 반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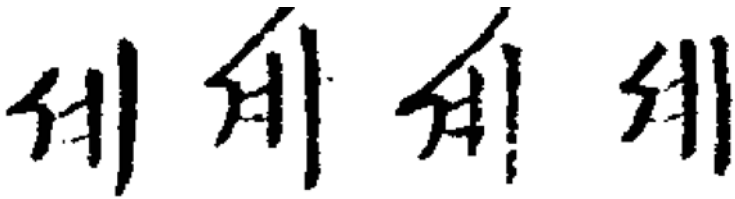


[계-1]

[계-2]

[계-3]

[계-4]⁶¹⁾



[세-1]

[세-2]

[세-3]

[세-4]⁶²⁾

한편 ‘시’ 같은 경우에는 ‘ㅅ’의 오른뺨침줄기에 변화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비록 필흔을 가진 ‘ㄱ’이 있다 하더라도 ‘ㅅ’의 기본적인 형태를 알고 있다면 이를 ‘ㅅ’으로 오독할 개연성은 사라진다.

61) <계_05b_09_22>, <계_12a_04_04>, <계_15a_09_14>, <계_24a_13_16>

62) <세_01a_02_07>, <세_02a_03_03>, <세_16a_10_09>, <세_09a_03_14>



[기-1]

[기-2]

[시-1]

[시-2]⁶³⁾

따라서 여기에서 검토한 ‘시’와 필흔을 가진 ‘기’를 구별하는 일은 결국 ‘시’이 ‘기’ 또는 ‘기’, 주로 ‘기’의 형태와 결합한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라 하겠다.

2. ‘속’과 ‘슈’의 구분

‘속’과 ‘슈’의 구분은 “‘기’ 받침을 가진 ‘ㄱ’”과 “받침이 없는 ‘ㅍ’”의 구분 중에서 매우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기’ 받침을 가진 ‘ㄱ’ 곧 ‘ㄱ+기’와 받침이 없는 ‘ㅍ’의 구분은 ‘곡, 규’ ‘녹, 뉴’ …… ‘폭, 퓨’ ‘혹, 휴’ 사이의 구분에 해당하며, 실제 문헌에 나타나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 받침을 가진 ‘ㄱ’의 형태를 취한 글자로는 ‘곡, 녹, 독, 록, 목, 복, 속, 옥, 죽, 혹’이 보인다. 또한 받침이 없는 ‘ㅍ’를 모음으로 취한 글자로는 ‘뉴, 류, 슈, 유, 쥬, 츄’가 보인다. 이들 중 실제 구분이 필요한 자형은 ‘녹, 속, 옥’과 ‘뉴, 슈, 유’로 보인다.

‘녹’과 ‘뉴’의 경우를 살펴보면, ‘ㅍ’의 형태를 다른 형태로 읽을 수 있는 개연성은 완전히 사라진다. 먼저 ‘뉴’와 ‘녹’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63) <기_01a_05_09>, <기_04a_13_05>, <시_19b_02_10>, <시_04b_01_01>

뉴 녹

[뉴-1]

[녹-1]⁶⁴⁾

[뉴-1]의 경우, ‘ㄴ’과 ‘ㅍ’ 사이를 연결하는 필흔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모음 ‘ㅍ’ 역시 가로줄기, 왼세로줄기, 오른세로줄기로 분명하게 구분되기에 이를 ‘녹’으로 읽을 개연성은 없다. 그러나 ‘뉴’의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서 ‘녹’만을 살폈을 때 사정은 조금 복잡해진다. [녹-1]에서 ‘ㄴ’의 세로줄기를 필흔으로 보게 되면, 이를 ‘뉴’ 또는 ‘뉴’로 읽을 개연성은 존재한다 하겠다.

이러한 양상은 ‘옥’과 ‘유’에서도 되풀이된다.

유 옥 유 옥 유 옥 유 옥

[유-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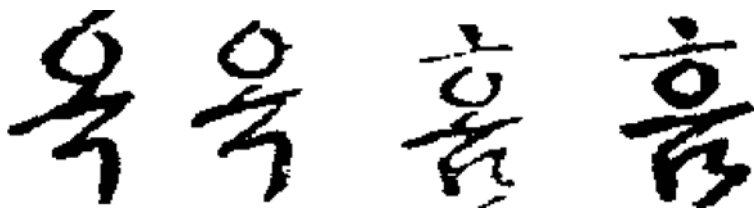
[유-2]

[유-3]

[유-4]⁶⁵⁾

64) <뉴_01a_07_04.GIF>, <녹_08b_04_17>

65) <유_03a_02_13>, <유_06a_11_20>, <유_07b_04_14>, <유_16b_11_15>



[옥-1]

[옥-2]

[흙-1]

[흙-1]⁶⁶⁾

[유-1]부터 [유-4]까지를 보면, 이를 ‘옥’으로 읽을 개연성은 없다. 그 이유는 앞서 살핀 ‘뉴’와 마찬가지로 자음 ‘ㅇ’과 모음 ‘ㅛ’의 가로줄기 사이에 어떠한 필흔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옥’으로 읽을 개연성은 남아 있으나, 그렇게 읽기에는 받침 ‘ㄱ’이 자연스럽지 않다. [옥-1]과 [옥-2]의 경우, ‘ㅇ’에 이어서 ‘ㄱ’의 세로줄기가 왼뺨침줄기처럼 비스듬하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ㅇ’에 이은 세로줄기가 ‘ㅇ’과 완전히 연결([옥-1])되거나 혹은 약간의 단절([옥-2])이 보이거나 하는데, 항상 세로줄기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유’로 읽을 개연성은 사라진다. 이처럼 ‘ㄱ’의 가로줄기의 형태가 비스듬하게 쓰이는 양상은 이미 ‘소’와 ‘쇼’를 검토한 기존 논의에서 지적한 바 있다.⁶⁷⁾

‘뉴’와 ‘유’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ㄴ,ㅇ’과 ‘ㅛ’의 가로줄기 사이에 어떠한 필흔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분명한 여백으로 인하여 이를 ‘녹’이나 ‘옥’으로 읽을 개연성은 없으며, 오히려 ‘ㅛ’의 왼세로줄기와 오른세로줄기를 ‘ㄱ’으로 보고 이를 ‘녹’이나 ‘옥’으로 오독할 수는 있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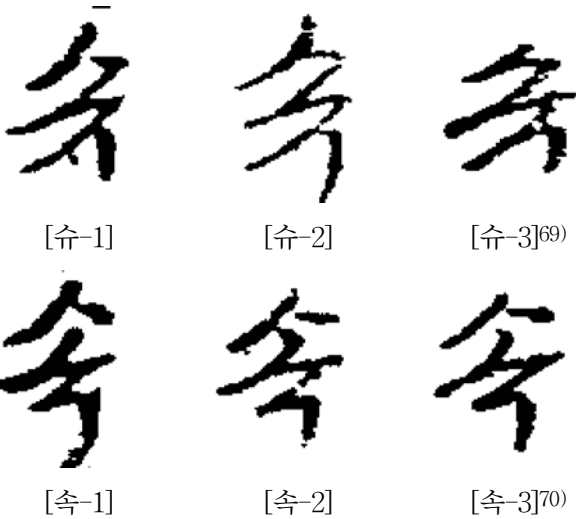
초성의 마지막 줄기와 중성의 첫 번째 줄기인 가로줄기 사이에 필흔이 없는 분명한 여백은 ‘ㅎ’과 ‘ㅎ’의 아래에 쓰는 모음의 가로줄기 사이의 관계를 살피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가령 ‘일흙’으로 읽을 것인가 아니면 ‘일흙’으로 읽을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흙’이나 ‘흙’의 경우 어떠한

66) <옥_02a_01_07>, <옥_18a_13_12>, <흙_02a_10_08>, <흙_01a_06_16>

67) 이창현, 『소설 방각본의 한글 각자체(刻字體) 소고』, 『민족문화』 28, 2005

필흔도 보이지 않을 경우([흙-1])에만 이를 ‘흙’으로 읽고, 필흔 또는 이와 유사한 흔적이 보이는 경우([흙-1])에는 이를 세로줄기로 보아 ‘흙’으로 읽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검토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결국 ‘슈’와 ‘속’의 구분이다. 먼저 ‘슈’에 해당하는 글자를 보이고, 이어서 ‘속’에 해당하는 글자를 보인다.⁶⁸⁾ 이는 모두 ‘슈’에 나타나는 ‘ㄷ’와 ‘속’에 나타나는 ‘ㄱ’와 받침 ‘ㄱ’의 결합 형태 사이의 구분이다.



[슈-1] [슈-2] [슈-3]은 모두 ‘ㅅ’의 오른뿔침줄기의 끝 부분에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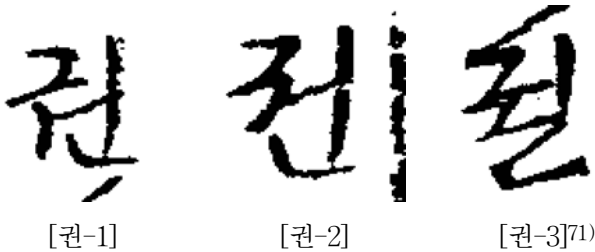
68) 그러나 실제로 문헌에 나오는 표기는 ‘속’보다는 ‘속’인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속’이라는 표기가 문헌에 나온다 하더라도 자형이 ‘슈’와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양상을 보인다. 때문에 ‘속’인지 또는 ‘슈’인지 미심쩍은 형태를 보이는 각자체는 ‘슈’로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

69) <슈_09b_06_16>, <슈_18a_09_01>, <슈_03b_05_20>

70) <속_10a_14_16>, <속_14b_02_17>, <속_16a_01_06>

‘π’의 가로줄기를 향하여 필흔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 필흔이 가로줄기의 중간 부분과 연결됨으로써 이를 ‘ㄱ’로 오독할 수 있다. ‘슈’만을 검토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를 ‘ㄱ’로 보는 순간에 ‘π’의 왼세로줄기와 오른세로줄기를 ‘ㄱ’으로 계속하여 오독하게끔 된다. 그러나 ‘속’의 각자체를 고려한다면 이를 ‘속’으로 읽을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해진다. [속-1] [속-2] [속-3]에 나타나는 ‘ㄱ’의 세로줄기는 ‘ㅅ’의 왼뿔침줄기가 시작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삼아 그 시작를 보이고 있으며, 필흔 또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물론 ‘ㄱ’의 세로줄기의 모습은 [속-1] [속-2] [속-3] 모두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속-2]의 형태는, 앞서 살핀 [나-6] [각-3] [파-5]에 나타나는 ‘ㅅ’의 가로줄기와 형태적 유사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글자 또한 오독될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닌다. 가령 ‘권’의 경우 이를 ‘전’ 또는 ‘전’으로 오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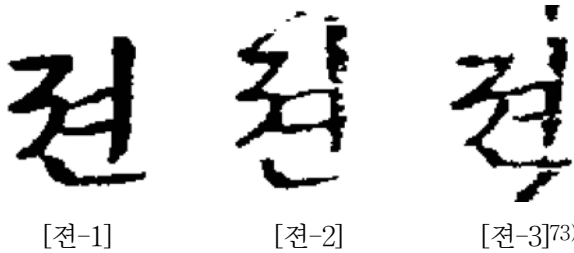


위 예는 모두 ‘권’에 해당하는 각자체인데, [권-1]의 경우는 분명하게 ‘권’으로 읽는다는 것에 어떠한 이견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권-2]의 경우는 ‘전’으로 읽을 수 있는 개연성을, [권-3]의 경우는 ‘전’ ‘련’ ‘련’으로 읽을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앞서 ‘ㅅ’의

71) <권_14a_09_11>, <권_01a_01_05>, <권_22a_14_18>

변이형을 살피면서 ‘ㄱ’ 또는 ‘ㅋ’와 결합한 ‘ㅅ’에서 오른뺨침줄기의 변이를 보았던 것처럼 ‘ㅈ’이나 ‘ㅊ’에서도 오른뺨침줄기의 변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문헌에 나타나는 ‘전’의 형태를 함께 보이기로 한다.⁷²⁾



[전-2]의 경우, 필흔을 가지고서 ‘ㅈ’의 가로줄기를 시작하고 있고, 앞서 제시한 [권-3]의 경우 역시 필흔을 가지고서 ‘ㄱ’의 가로줄기를 시작하고 있다. [권-3]의 경우, 모음 ‘ㄱ’을 구성하는 ‘ㄱ’의 가로줄기가 [권-1]의 가로줄기보다 긴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모음 ‘ㄱ’을 구성하는 ‘ㄱ’의 가로줄기가 ‘ㄱ’의 세로줄기 끝부분 근처에서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ㄱ’이 아닌 ‘ㅋ’라는 형태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ㄱ’에 있어서 ‘ㄱ’의 가로줄기는, [권-1]과 [권-2]처럼, ‘ㄱ’의 세로줄기 중간쯤에서 시작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권-3]의 경우는 ‘ㄱ’의 세로줄기 끝부분에서 시작하는 모습을 보인다. 아울러 [권-3] ‘ㄱ’의 가로줄기 길이가 긴 점도 이를 ‘ㅋ’로 읽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전’의 경우, ‘ㅋ’는 윗가로줄기와 아래가로줄기 그리고 세로줄기로 구성되는데, 이때 윗가로줄기가 ‘ㅈ’의 오른뺨침줄기의 변이형과 연속되는 모습을 형성하는 [전-3]과 같은 경우 역시 ‘권’으로 오독될 수 있다. 결국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ㅋ’의 윗가로줄기와 세로줄기가 연결되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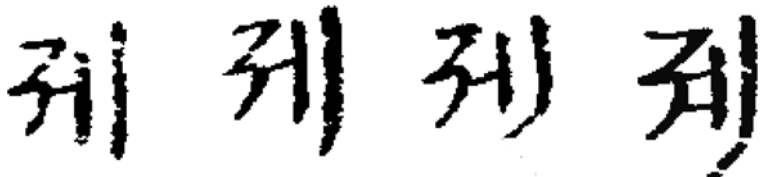
72) 홍길동전 24장본에는 ‘전’이 보이지 않으며 오직 ‘전’만 보인다.

73) <전_04a_04_16>, <전_07a_12_02>, <전_03a_07_05>

([전-3]), 아니면 윗가로줄기로 읽은 부분이 세로줄기와 떨어진 상태로 각자되었는가([권-3])에 의해서 구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처럼 오독할 개연성을 지닌 특정한 자형을 몇 개 제시하는 것으로 논의를 그치기로 한다.

먼저 ‘궤’로 오독할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닌 ‘제’이다.



[제-1]

[제-2]

[제-3]

[제-1]⁷⁴⁾

다음은 ‘귀’와 ‘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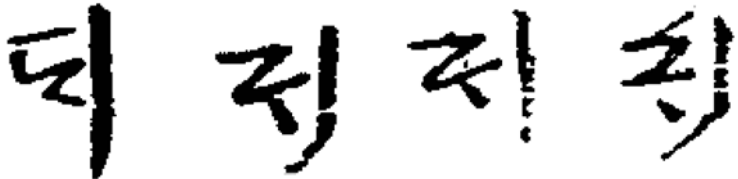


[귀-1]

[귀-2]

[귀-3]

[귀-4]⁷⁵⁾



[디-1]

[디-2]

[디-3]

[디-4]⁷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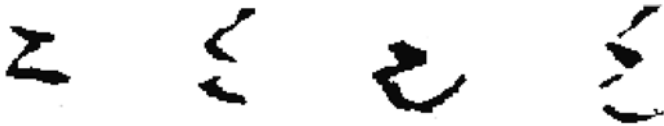
74) <제_12a_13_01>, <제_18b_14_15>, <제_20a_13_08>, <제_11a_11_17>. ‘궤’는 여기에 보이지 않으며, ‘제’ 또한 특정한 각자체에서는 ‘궤’로 읽을 개연성이 더 높아지는 것 같다.

75) <귀_09a_10_17>, <귀_06a_02_03>, <귀_01a_12_15>, <귀_02b_04_11>

다음은 ‘고’와 윗글자를 반복할 때 사용하는 기호인 오리문자이다.



[고-1] [고-2] [고-3] [고-4]⁷⁷⁾



[오리문자-1] [오리문자-2] [오리문자-3] [오리문자-4]⁷⁸⁾

V. 결론

지금까지 경판방각소설을 간행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각자체를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먼저 등재본인 정사본에 나타나는 서체인 필사자의 자체, 그리고 이를 판목에 뒤집어 붙인 결과 나타나는, 필사자의 자체가 쓰인 종이의 배면에 나타나는 자체, 이를 기반으로 각수가 판각 작업을 한 결과 판목에 새겨져 남겨진 자체인 본질적 의미에서의 각자체, 이 판목을 사용하여

76) <타_01a_03_09> <타_02b_02_18>, <타_14a_11_11>, <타_21a_13_02>

77) <고_09a_12_04>, <고_19b_07_10>, <고_24a_09_05>, <고_24b_02_09>

78) <"_04b_14_22>, <"_13a_11_02>, <"_21b_01_09>, <"_22b_15_16>

인행한 결과 판본에 나타나는 자체로 직접적 검토가 가능한 각자체 등을 판본에 남아 있는 각자체를 근거로 재구성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은 많은 자형 중에서도 위의 과정을 거치면서 ‘卜’의 형태가 각수에 의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그 개연성을 두루 살펴보았다. 아울러 해서를 지향하는 각자체라는 완판방각소설의 각자체와는 달리, 행서나 초서를 지향하는 각자체라는 경판방각소설의 각자체가 지니는 흘림체적 특성을 일부 자형을 중심으로 살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흘림체라는 경판방각소설의 각자체는 특히 필흔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살폈다.

끝으로 이러한 필흔이 각각의 글자를 구성하는 줄기들과 만나면서 다른 자형으로 오독될 수 있는 각자체를 부분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오독될 수 있는 하나의 자형에 대한 검토보다는 유사 자형과의 비교 검토를 진행함으로써 오독의 가능성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첫째는 이러한 논의가 극히 제한된 문헌에 한정되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여기에서 얻은 결론이 항구적인 것이 아니며, 여타의 문헌으로 검토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또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 개연성을 여전히 남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지금까지 이루어진 논의 과정을 통해 얻은 결론이 어느 정도 유효할 것이라는 기대는 남아 있다고 하겠다.

둘째는 형성된 각자체의 선후 관계에 대한 검토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이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간행시기가 밝혀져 있는 자료인 임경업전(1780년)과 전운치전(1847년)을 선정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로 다룬 자료는 간행시기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는 치명적 약점을 지니고 있다. 물론 이 자료를 선택함에는 전반부의 판각 시기와 후반부의 판각 시기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항상 고려하면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의 논의가 주로 ‘쇼’의 형태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음에 비하여, 여기에서는 ‘쇼’의 변모를 살피기보다는 경판방각소설의 흘림체적 특성을 거듭 확인하는 것과 함께 오독될 수 있는 각자체를 정리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다루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서도 ‘쇼’를 중심으로 그 변화를 살피는 작업이 어느 정도 유효할 것이라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필자의 한정된 능력으로 인하여 이를 모두 감당할 수는 없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 다만 경판방각소설의 각자체를 계속 논의함에 있어서 어떠한 자형을 중심으로 검토 대상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는다.

주제어 : 각수, 각자체, 방각본, 경판본, 등재본, 정사본, 해서체, 행서체, 초서체, 홍길동전

참고문헌

전운치전 <37장본>
진대방전 <28장본>
춘향전 <23장본>
홍길동전 <24장본>
훈민정음 <영인본>

- 權純肯, 『活字本 古小說의 편폭과 지향』, 보고사, 2000, 1-340쪽.
- 金東旭, 『판본고-한글소설 방각본의 성립에 대하여』, 『춘향전연구』, 연세대학교출판부, 1965, 379-402쪽(『한글 소설 방각본의 성립에 대하여』, 『향토서울』 8, 1960.7.의 개고).
- 류준경, 『達板 坊刻本 연구』, 『韓國文化』 35, 2005.6, 57-87쪽.
- 柳鐸一, 『완판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 학문사, 1981, 1-269쪽.
- 柳鐸一, 『韓國文獻學研究』, 亞細亞文化社, 1990(재판), 1-552쪽.
- 李能雨, 『이야기책 舊活版本 調査目錄』, 『古小說研究』, 二友出版社, 1980, 269-306쪽.
- 李政沅, 『安城板 坊刻本 출판 현황』, 『語文研究』 127, 2005.9, 161-184쪽.
- 李周映, 『舊活字本 古典小說 研究』, 月印, 1998, 1-234쪽.
- 이창헌, 『안성지역의 소설 방각활동 연구』, 『한국문화』 24, 1999, 99-140쪽.
- 이창헌, 『경판방각소설 판본 연구』, 태학사, 2000, 1-592쪽.
- 이창헌, 『경판(京板) 방각소설 <24장본>의 문헌적 성격』, 『한국문학논총』 26, 2000.6, 135-168쪽.
- 이창헌, 『이야기·책·이야기』, 보고사, 2003, 1-448쪽.
- 이창헌, 『이야기책의 글자모양 : 각자체(刻字體)』, 『이야기문학연구』, 보고서, 2005, 115-156쪽.

- 이창현, 「소설 방각본의 한글 각자체(刻字體) 소고」, 『민족문화』 28, 2005, 225-261쪽.
- 이창현, 「경관방각소설의 간기에 대한 연구」, 『한국문학논총』 43, 2006.8., 69-106쪽.
- 崔皓皙, 「大邱 在田堂書鋪의 出版 活動 연구」, 『語文研究』 132, 2006.12, 229-253쪽.
- 崔皓皙, 「안성의 방각본 출판 입지」, 『19세기말·20세기초 안성지역의 출판문화 연구(I)』 발표요지, 2005.6.3, 37-52쪽.

<Abstract>

Thesis on the Style of Carved Letters in Seoul Block Prints

Lee, Chang-Heoun

The carved letters on the woodblock-printed has its origin in the letters written clearly by the calligraphist. The calligraphist writes the letters in easy and mellowed style, just like in the square style. The shape of the letters written by the calligraphist is changed just a little through the operation of carving, whether by design or by accident. So the letters originated by the carving-man differs a little from the letters originated by the calligraphist.

The calligraphist makes the well written version for registration in the cursive style of writing, in the correspondence style of writing or in the printed style of writing. The carving-man carves the letters in a turned-inside-out situation of the version. By this reason, the miscaved letters is coming out on the woodblock-printed.

The well written version for registration of Seoul block prints, which were published around Seoul area in the figure of the woodblock-printed, is usually written in the cursive style of writing or the correspondence style of writing. So the Reader makes misreading the letters of Seoul block prints occasionally.

Here I makes some examination on these : a) the difference between the letters written by the calligraphist and the letters carved by the carving-man. b) the variation of the carved letters ‘a(ㅏ)’. c)

the reasons of the variation d) the misreading of the character carved in the cursive style of writing or in the correspondence style of writing. e) the traces of the stems used in a character, f) the traces of the stems used between the above character and the below character.

In conformity with these examinations, the Readers' misreading of the character is caused by the traces from the last stem of the above character to the first stem of the below character, and by the strokes of the vertical stem which looks like the half-horizontal stem.

Key Words : carving-man, woodblock-printed, carved letters, the correspondence style of writing, the printed style of writing, the cursive style of writing, Seoul block prints, *Honggildongcheon*, variation of strokes